

07 연례보고 08

광주비엔날레

< D - 4 >

올 가을 광주 도심 곳곳이 뜨거운 미술축제의 향연장으로 거듭난다. 제7회광주비엔날레(5일~11월9일)가 전시장의 벽을 넘어 대인시장과 무등산 기슭 등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광주 곳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의 전시 공간은 주무대적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광주시립미술관, 무등산 기슭의 의재미술관, 재래시장인 대인시장, 예술영화전용관인 광주극장 등

이다. 광주 시민들의 손때가 묻은 공간이 세계 미술 축제의 장으로 되살아 난 것이다. 오쿠이 엔위저 예술총감독은 "의재미술관은 아름다운 곳이며 대인시장은 광주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장소"라면서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미술작품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광주라는 도시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광주 도심 전체가 작품 전시 공간”

▶ 비엔날레 전시관 ‘길 위에서’ 등 3개 섹션 71개 작품 선보여



광주시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는 ‘길 위에서(On the Road)’ ‘제안(Position Papers)’ ‘끼워넣기(Insertions)’ 등 3개 섹션의 71개 작품이 선보인다. 5개의 전시실로 이뤄졌으며, 섹션 별로 전시장을 나누지 않고 모든 섹션의 작품을 같은 공간에 펼쳐놓는 방식으로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초대된 36개의 전시회(길 위에서)와 제안, 끼워넣기 섹션의 작품들이 서로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별도 섹션 별 공간을 나누지 않았다. 관람객들에게 첫선을 보이게 될 1전시실 첫 작품은 요하힘 손필트(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포 뮤지션스(for Musicians)’.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자, 아프리카 소, 공작, 독수리를 박제해 진열한 뒤 사람이 직접 음악을 연주하는 작품이다.

▶ 대인시장 빈 점포를 전시장으로 ... ‘복덕방 프로젝트’ 오픈



1950년대 이후 형성된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점포가 비어있는 등 날로 쇠락해 가고 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빈 점포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시장 상인과 시민들이 예술과 교감하는 공공미술의 장으로 부활하게 된다. ‘제안’ 섹션의 박성현 큐레이터 기획으로 ‘복덕방 프로젝트’가 열리며 신호운, 마문호 등 지역 작가들이 참여한다. 남도의 대표 음식인 흥어를 소재로 대형 활인 매장의 공세 속에 초라해진 재래시장의 현재 모습을 조명한다. 또 세부 프로그램인 ‘파프리카 프로젝트’는 과일과 야채가 지닌 천연색소를 통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오는 3일에는 대인시장 안 광서약국 사거리에서 시장 상인들과 작가들이 어우러진 ‘복덕방 프로젝트’ 오픈 행사도 열린다.

▶ 광주시립미술관 ‘고든 마타 클락-네가 척도다’ 95점 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에 걸맞은 규모와 시설을 갖춘 광주시립미술관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전시 공간이다. 지난 2007년 10월 중외공원내 옛 과학관과 북관 부지 1만8430㎡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세워졌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고든 마타 클락-네가 척도다’전에 출품된 95점을 비롯해 레이문도 알바노(Raymundo Albano-필리핀)의 ‘해피 버스데이(Happy Birthday)’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 필리핀국립대학교 미술사 교수인 패트릭 플로레스가 기획한 제안 섹션의 ‘발원지에서의 방향전환’도 열린다. 동남아시아 근현대사의 변화를 보여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 광주극장 14부작 극영화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상영



광주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으로 70년 넘게 지역민들에게 영화를 상영했던 추억의 공간이라는 점을 살려 광주비엔날레의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전시 기간 동안 독일출신 영화감독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Rainer Werner Fassbinder·1945~1982)의 영화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Berlin Alexanderplatz)’이 상영된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에 영상 작품이 소개된 적은 많았지만 극영화 자체가 전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첫 상영되는 이 영화는 14부작이며, 오는 4일부터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광주극장에서 상영된다.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을 가지고 오면 전편을 무료로 볼 수 있다.

▶ 의재미술관 의재 허백련 대표작·‘초콜릿 셰크’ 등 전시



남종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1891~1977)화백이 무등산에서 차밭을 일구며 예술 혼을 불태운 뜻을 기리기 위한 전시 공간이다. 무등산의 빼어난 풍광과 중심사 등의 전통 문화가 외국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허백련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대표작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이 초콜릿으로 지은 집의 향기를 맡고, 직접 먹는 이색 작품인 마리아나 브니모브(베네수엘라)의 ‘초콜릿 셰크(chocolate shack)’를 선보인다. 스테파노 아리엔티(이탈리아)는 이사벨라 슈투르트 가드너 미술관(미국 보스턴)에 소장된 일본·중국 작품을 토대로 고안한 ‘아시아의 해안(The Asian Shore)’을 출품하는 등 작가 15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 금남로·문예회관 대규모 거리 퍼포먼스·개막식 행사 열려



1980년 5월 뜨겁게 달아 올랐던 금남로도 광주비엔날레 퍼포먼스 공간이 됐다. 금남로에서는 개막일인 5일 오후 8시 한국 사회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역사성을 표현하는 대규모 거리 퍼포먼스인 ‘빛’이 열린다. 미국 뉴올리언스 현대미술센터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클레어 탄콘스의 지휘로 200~500여명의 시민과 참가자들이 벌이는 일종의 축제와 거리 퍼포먼스가 결합된 작품이다. 이에 앞서 운암동 광주문예회관에서는 오는 5일 오전 10시 제7회광주비엔날레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열린다. 시민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개막식 참석 인사를 뽑는 ‘빛의 사람들 0708’ 행사를 통해 선정된 시민 708명 등 1천800여명이 참여한다.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리는 사전행사에서는 9인조 브라스밴드인 ‘킹스투루 디스카’의 축하 공연도 펼쳐진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영화안내' (Happy Time Movie Guide)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and movie posters. Includes sections for Mega 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iors Grand, Hami Cinema, and Jeil Cinema, each with a list of movies and showtimes.